

# 농어촌공사 이어 한전 이주 시작...5만 신도시 마무리

광주·전남 공동으로 조성해 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가 이달부터 본격화될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의 입주와 함께 사실상 틀이 완성된다. 지난 9월부터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공공기관 3곳이 이전을 완료했다. 오는 7일부터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10일부터 한전 KPS, 17일부터 한전 KDN이 이전을 시작한다.

연말까지 전체 16개 공공기관(해양경찰교육원 제외) 가운데 13곳이 동지를 틀게 된다. 혁신도시 내 한전 관련 기업만 100여 곳이 함께 이전해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에서 지역 대학 출신 인재를 중용할 가능성도 높아 지역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공정률 84.9%~12곳 100%=을 상반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4곳에 이어 하반기 이전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 등 7곳이 혁신도시 내에 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편의 및 유통시설의 미흡, 인근 도로와의 연계 불편 등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으나 도시 내 거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생기가 돌고 있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전체 이전기관 직원 6909명 가운데 올해까지 6160명이 이주를 마칠 예정이다. LH임대아파트 입주, 하반기 공공기관 이주 등이 본격화되면 혁신도시 거주인구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들 공공기관들이 지역연계사업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나주시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지역발전의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을 하반기 이전이 예정된 기관은 농수산식품유통공

연내 16개 공공기관중 13곳 동지

한전 관련기업만 100여곳 따라와

이전기관 직원 6160명 이주 마쳐

전남도·광주·나주시 협의회 발족

일자리 창출·이주민 민원 해소 등

이전기관-지역 협력체계 구축 총력

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KPS, 한국전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전 KDN 등이다.

◇일자리 창출 총력, 지역 인재 채용 전방위 노력= 전남도는 최근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ICT(정보통신 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내 ICT 종사자는 3000명선, 광주·전남 대졸자는 연 1500명 선으로, 혁신도시 190개 기업 및 기관이 향후 5년간 2200명 정도의 인력 수요가 있으며, 1년 이내 대체 인력 660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 및 기관은 “대졸자의 경험·기술 부족으로 실무 투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실습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완전 다르다”며 상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018년까지 연간 530명씩 모두 2120명의 미취업 청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시스템 제어, 3D프린터 활용, 사물인터넷 등 기업수요가 많은 직무 기술 등에 대한 교육·훈련시켜 취업시킬 방침이다. 사업비는 대략 16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 및 기업들의 불편 및 민원을 최대한 지원·해결하면서 지역 대학 출신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어서 그 성과물도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나주시장, 16개 이전 공공기관장 등 19명으로 구성되는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장 협의회’는 향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및 협력업체 지역유치,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 지역사회 소통 등 지역융화 사업 등에 나서게 된다.

◇에너지·농업·정보통신·문화의 세계화 기회=16개 이전 기관 가운데 한전을 비롯해 에너지 분야 기관 4곳,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생명 분야 5곳,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정보통신 분야 4곳,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 예술 분야 3곳 등이다. 이들 기관들이 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지역 내 관련 정책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수철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빛가람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서둘러 도시 면모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 공공기관별 이전 추진 상황

구분	기관명	이전인원(명)	청사규모(층)	이전일(예정일)	공정률(%)	업무개시
에너지 (4)	한국전력공사	1,425	지하2/지상31	14.11.7~11.30	100	2014.12.1
	한전KDN	944	지하1/지상18	14.11.17~12월초	100	-
	한전KPS	482	지하1/지상19	14.11.10~11.28	100	2014.12.1
	한국전력거래소	302	지하1/지상9	14.9.26~10.5	이전완료	2014.10.6
농생명 (5)	한국농어촌공사	732	지하1/지상18	14.9.22~9.28	이전완료	2014.9.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63	지하1/지상7	2015. 6	44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66	본관(지하1, 지상3), 생활관(지상4)	13. 12. 22	이전완료	2013.12.23
	농수산식품유통공사	322	지하2/지상15	14.9.15~9.21	이전완료	2014.9.22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77	지하1/지상4	2015.12	-	부지매입중
정보통신 (4)	우정사업정보센터	816	지하2/지상4	13.3.3	이전완료	2014.3.4
	한국인터넷진흥원	509	미정	15.12	-	설계중
	국립전파연구원	142	지하1/지상4	14.6.30	이전완료	2014.7.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50	지하1/지상6	14.3.2	이전완료	2014.3.3
문화예술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4	지하1/지상3	14.4.24	이전완료	2014.4.25
	한국콘텐츠진흥원	171	지하1/지상5	14.6.1	이전완료	2014.6.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88	지하1/지상11	14.12.10	99.6	-
개별이전	해양경찰교육원	146	본관(지하1, 지상9) 생활관(6개동) 교육 및 연구시설	13.11	이전완료	2013.11.11

## 관련 직원 2만...매출액 기준 삼성전자 이어 2위 공기업

### 7일부터 이주 시작하는 한국전력은?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최대의 에너지 공기업이다.

총자산 155.5조, 지난해 기준 매출액 53조6924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과 환율하락에 따른 발전연료비 가격 안정 등으로 영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매출이 2012년보다 8.8% 증가했다.

주주는 정부와 기관이 주를 이룬다. 정책금융공사가 29.94%, 정부 21.17%, 외국인 23.46%, 일반주주 및 기타 25.43%로 구성됐다. 자회사는 국내에 발전회사와 그룹사 등 10개사, 해외에 투자회사와 현지법인 등 22개사를 소유하고 있다. 임직원 수는 1만9644명이다. 빛가람 도시로 이전하는 본사 인력 규모는 1500명 선이다.

한전과 함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전KPS와 한전KDN은 1000대 기업 중 각각 306위, 816위 규모다. 한전KPS는 수·화력 및 원자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전력·발전 설비 전문 정비회사다.

한전KDN은 발전과 송·변전, 배전 등 전력계통 전 과정에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KPS의 지난해 매출은 1조1217억원, 한전KDN은 3728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이전하는 한전 관련 3개 기업의 매출 총액은 55조1869억원에 달한다. 이는 울산지역 23개 기업의 매출액을 합친 54조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2월초 사실상 이전을 마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빛가람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제언

# 이전기관 철저한 현지화 절실...정주여건 늘려 가족 동반 이주 촉진해야

### 양복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국장〉



나주시 금천면 일대 733만 4000㎡의 부지에 약 1조4000억원(청사, 아파트건축비 제외)을 들여 조성된 광주시와 전남남도의 공동 혁신도시인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으로 2015년 말까지 한전, 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공기관과 직원 6717명이 이주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9개 기관 2829명의 직원은 근무중이다.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 분야 최고 전문 인력들이 활동하는 이들 공공기관의 입주는 21세기형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은 혁신도시형 발전으로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시와 남양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개발의 축에 위치하고 있다는 매우 좋은 조건도 더해 갖추고 있어서 발전 거점으로서의 역할 기대가 크다.

물론 혁신도시를 통한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성공을 확신할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선결해야 할 일들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다. 사실 이전에도 상무신도시, 남양신도시, 기업도시 등 여러 도시조성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이들 도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였으나 광주·전남 총인구의 증가나 지속적인 지역생산력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다.

빛가람혁신도시는 한전, 농어촌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도시로서 지역으로의 인구의 순유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지역발전에 큰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혁신도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지역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혁신 산실’로서의 빛가람혁신도시는 고도의 정신적 활동의 산물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공간이다. 지금은 혁신이 성장동력이고 생존여부를 결정하는데, 왕성한 혁신활동은 지역 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꼭 있어야 한다.

이어 정주여건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혁신도시 건설특별법을 보면 혁신도시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기존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편이어서 정주여건의 확충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

아울러 정착지원 원스톱서비스, 생활정보의 제공, 배우자 등의 취업알선, 이주정착금 및 자녀전학

지원, 주변지역 역사문화 탐방실시, 미혼남녀 만남 행사 개최 등을 실시함으로써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주여건을 확보하면서 반드시 지역을 한 덩어리로 보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지역과 하나의 정보공간이 되고 활동공간이 되도록 한다는 개념 아래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혁신도시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따로 떨어진 육지 속의 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은 이전기관의 현지화다. 현지화란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기업 생산물을 우선 구매하며 산업별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협력업체들이 지역으로 동반이전하며 전문인력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혁신도시특별법상의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 대학, 연구소, 기업 등 혁신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유지하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연구소, 첨단기업 등 새로운 혁신요소들을 유치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이 필요하고 재정, 세제, 금융상의 혜택, 행정절차 지원,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구매약정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고, 지자체, 대학, 지역산업진흥조직, 지자체 연구소, 지역기업인조직, 지역금융권, 직업훈련기관 등도 이전 공공기관의 현지화를 위해 함께해야 할 일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한다.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지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파급력이나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는 평가다. 광주·전남 사람들이 빛가람 혁신도시를 ‘보배’로 생각하는 날을 상상해 본다.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5층 던롭침대

**30%**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http://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 세계 최고 던롭침대 1년 한번 세일 11월 16일까지